

2009. 10. 27

동남아 철강시장 경쟁구도와 주요 철강사 전략

글로벌연구실
박경서, 조대현

Executive Summary

동남아 철강시장 경쟁구도와 주요 철강사 전략

● 동남아는 세계 최대의 철강 순수입 지역으로 남을 전망

- 경제는 201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이 기대되며, 2008년 FDI 규모도 인도 및 브라질을 추월하는 등 유망 투자 지역으로 부상 중
- 특히 철강 수요는 연평균 9.2%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5.1% 증가에 그쳐 공급부족량이 2008년 3,700만 톤에서 2015년에는 4,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철강시장은 중국과 일본의 양강 체제 고착화

- 시장점유율(총강재 기준)은 중국 및 일본이 각각 30% 내외를 점하고 있고 한국은 10% 이하로 정체 상태
- 특히 판재류시장은 여전히 일본산의 비중이 높으며 일부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비중이 증가 추세

● 일본과 중국 Mill들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중

- 일본 Mill은 이미 구축된 SCM을 기반으로 수출 전략을 강화
- 중국 Mill은 기존 화교 네트워크 및 현지 사무소 운영을 통한 전방위 수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신예 일관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급 판재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로컬 Mill은 역내 시장에 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자본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진전은 미미한 상태

● 한편 한·중·일 3국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경쟁 여건은 한국이 가장 취약한 상황

: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의 신속 시행이 필요



I.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	1
II. 시장 경쟁 현황	3
III. 주요 Mill의 동남아 전략	4
IV. 종합 의견	8

I.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

1. 경제 성장: 신흥국 중에서 중국 및 인도에 이어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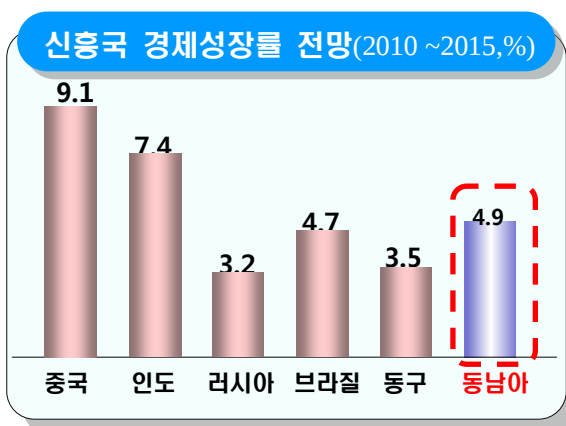
- 201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 예상

- 중국(9.1%) 및 인도(7.4%) 대비 낮은 수준이나 브라질(4.7%), 러시아(3.2%), 이머징 유럽(3.5%) 대비 높은 수준
- 2015년 실질 GDP 규모는 1조 4,000억 달러로 인도(1조 7,000억 달러)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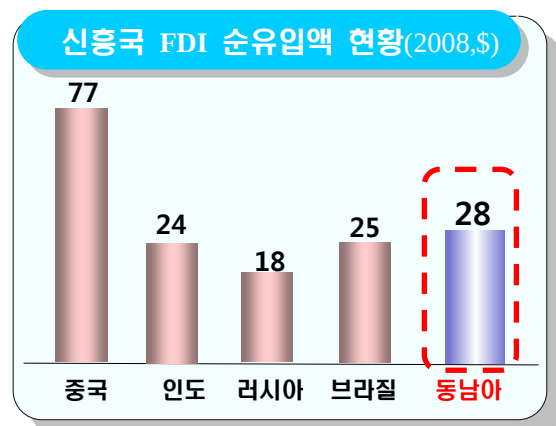
- 고성장 기대로 유망 투자 지역으로 부상

- 2008년 FDI 순유입액 280억 달러로 인도 및 브라질 등 추월
- 2009년 FDI 투자 유망국 조사(UNCTAD)에서 높은 순위 점유
 - 인도네시아 9위, 베트남 11위, 태국 15위

< 경제성장률 전망 및 FDI 유입 현황 >



자료: Global Insight(09.9)



자료: UNCTAD(09.9)

2. 철강 부문: 공급 확대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로 순수입 규모 지속 확대 전망

● 수요: 연평균 9.2% 성장하여 2015년 7,300만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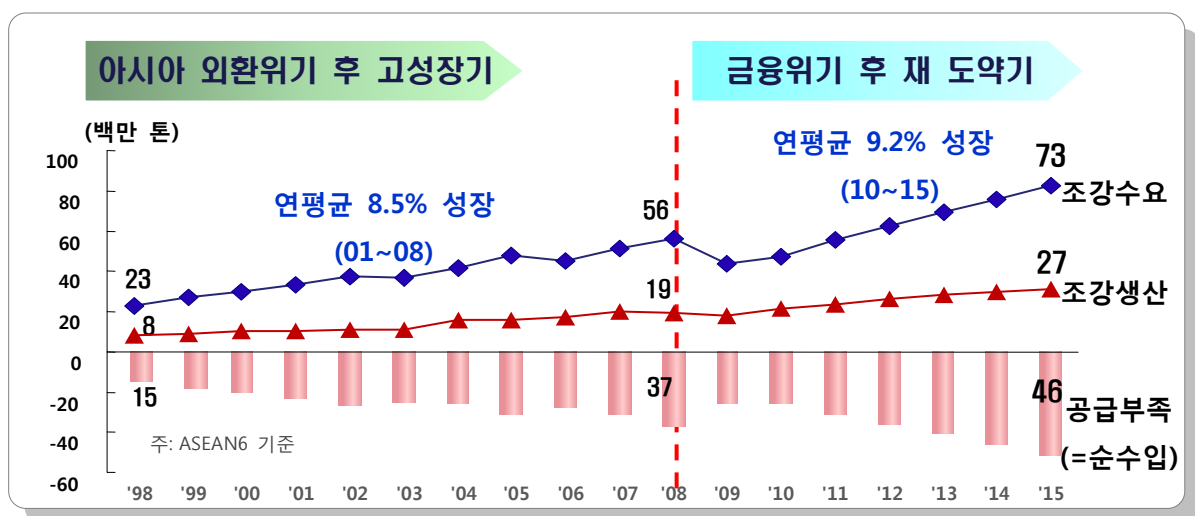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고성장기(2001~2008) 성장률(연평균 8.5%) 상회
- 자동차 생산은 220만대(2010)에서 320만대(2015)로 증가 전망(연평균 8% 증가)
- 특히 2015년까지 건설투자 부문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 인도네시아 9.5%, 베트남 9.2%, 말레이시아 8.8% 등

● 공급: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5년 2,700만 톤 전망

- 발표된 상공정 신증설 계획이 3,700만 톤(외국계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기술 부족으로 현재까지는 추진 실적 부진한 상황

☞ 2008년 공급부족(순수입)량 3,700만 톤에서 2015년에는 4,6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세계 최대 순수입 시장 지속 전망

< 조강수급 실적 및 향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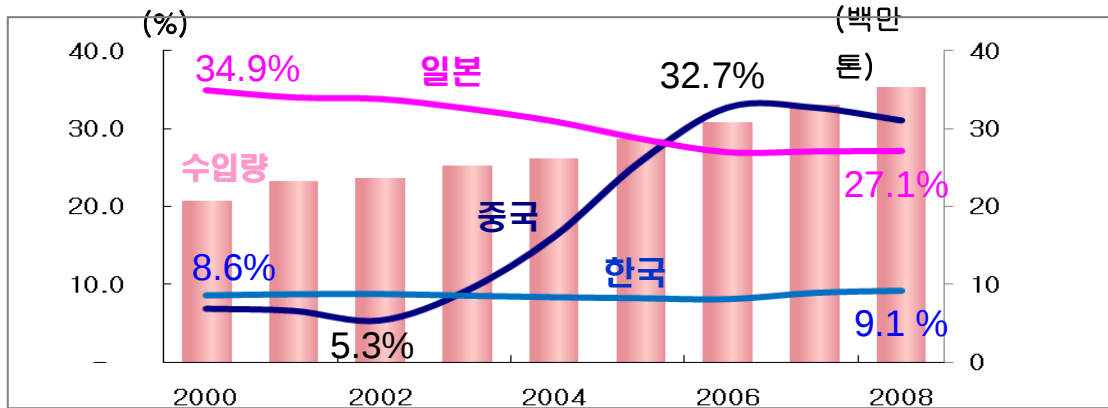


Ⅱ. 시장 경쟁 현황

● 중·일 2파전으로 고착화 조짐

- 시장점유율(총강재 기준)은 중국, 일본 등이 각각 30% 내외인 반면, 한국 제품은 10% 이하로 정체 상태
- 2003년부터 중국 제품 점유율 급속 증가, 5.3%(2002)→32.7% (2006)
- 2006년 이후 중국 제품의 수입 비중 1위로 부상

< 한중일 점유비 추이 (총강재 기준) >



자료: ISSB 각 년도, 3년 이동 평균

- 판재류는 일본산 비중 높으나 일부 중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산 증가
- 2008년 판재류 수입물량 1,900만 톤 중에서 일본 41%, 중국 21%, 한국 14% 점유

< 한중일 판재류 점유율 (2008) >

	일본	중국	한국	기타	(%, 천 톤)
					수입량
열연코일	44.5	15.8	10.8	28.9	6,910
협폭열연	20.6	37.8	4.3	37.4	218
후판	21.1	40.1	9.9	28.9	3,488
냉연코일	44.9	16.9	19.0	19.3	3,617
협폭냉연	17.8	24.5	19.5	38.2	240
칼라	15.1	35.0	21.9	28.0	777
판재류	41.1	20.7	14.1	24.1	18,995

자료: SEAISI (2009)

- 일본 제품은 열연 및 냉연코일 부문에서 40% 이상 점유
- 중국 제품은 봉형강류 중심에서 최근 협폭열연, 후판, 협폭냉연, 칼라강판 등 판재류 비중 증가

Ⅲ. 주요 Mill의 동남아 전략

1. 일본: 이미 구축된 SCM을 기반으로 수출 전략 강화

- 신규 거래선의 개척을 위해 최근 마케팅 인력의 현지 파견 등 동남아 영업력 강화(JFE)
 - 미국 수요의 감소, 중국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 한국 H사 시장 진입 압박 등에 의한 동남아 수출 압력 증대 대응이 목적
- SCM 기지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현지 판매 기반 강화
 - 1990년대 말까지 35개 Coil Center(이하 CC)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태국 및 베트남 중심으로 14개 추가(총 49개 CC, 일본 10개 상사 기준)
 - 자동차, 가전 등 일본의 현지 진출 기업 및 일본계 상사가 운영하는 CC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 현지 판매 기반 확보 강화

< 일본계 Coil Center >

	태국	베트남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계
~1990년대	11	-	6	8	6	4	35
2000~2008	5	7	1	-	-	1	14

주: 일본 10개 상사 기준

- 향후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직접 진출 기회 모색 중
 - JFE, 베트남에 고로 일관 Mill 건설 관련 Pre-F/S 추진(2008.12~)
 - 신일철/JFE, 태국 정부의 일관 Mill 건설 프로젝트 참여 계획(2009.7.7 현지 언론)

2. 중국, 전방위 수출 전략 강화 및 남부 지역에 일관 Mill 건설 추진

● 현지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출 확대

- 화교 네트워크의 동남아 경제권 장악력: 인도네시아 약 80%

● 바오산강철, 현지 무역 법인 및 사무소 운영으로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싱가포르에 동남아 총괄 법인을 두고, 방콕, 쿠알라룸푸르 및 홍콩 (원료수입)에 무역 사무소 운영

● 바오산강철 및 우한강철그룹, 잠지양(湛江) 및 팡청강(防城港)에 일관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인접성을 활용한 수출 확대 예상

- 3년간 ‘신설사업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또는 2015년에 1단계 생산설비(각 1,000만 톤, 900만 톤) 가동 전망
- 향후 판재류 고급제품 비중 증가 예상

< 중국의 동남아 주요 거점 >



3. 로컬 Mill, 수입 의존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설비 투자 부진

- 최근의 설비 투자는 주로 소형 고로, HR 및 빌렛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 실적은 부진
 - 베트남 상공정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연: Formosa Project는 부지 조성 지연, E-United 및 Lion Group 프로젝트는 착공식 후 진전 미미한 상황
 - NSC, JFE 등은 태국 정부의 철강종합단지 건설 및 Sahaviriya의 상공정 투자 협력 요구에 소극적 입장 견지

< 상공정 신증설 프로젝트 최근 동향 > (단위: 백만 톤)

국가	추진기업	제법	능력	진행상황
베트남	Formosa (+ SunSCO)	고로	15 (2012)	사업권 획득 및 착공식(2008.6) 후 진전 미미
	Lion Group (+ Vinashin)	고로	4.8	사업권 획득(2008.9) 했으나, 말련 내 DRI 신설추진으로 자금난
	E-United (+ Tycoon)	고로	3.5	착공식(2008.10) 후 사업추진 중단
	JFE	고로	-	일관밀 Pre-F/S 추진(2008.12)
	VNSteel	전기로	5.0	~2010 년
태국	Sahaviriya	고로	(5.0)	정부 허가 지연
말련	Lion Group	DRI	3.5	2009 하반기 완공 예정

< 하공정 신증설 계획 > (단위: 백만 톤)

국가	프로젝트	생산제품	능력	진행상황
베트남	CSC-SMI 냉연	CR, GI, 전강	1.6	정부허가 요청 중
	VNSteel 냉연	CR	+0.2	~2009. E
	Hoa Sen Gr. 냉연	CR, GI	0.45, 0.2	~2010. E
태국	G Steel 열연	HR	+1.6	~2009. E (자금난 으로 지연 가능성)
말련	Krakatau Steel 열연	HR	+0.4	~2010. E

참고: 한·중·일의 對 ASEAN 과의 철강부문 FTA 체결 현황

- 한·중·일 3국 모두 ASEAN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시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일본은 개별 국가와 쌍무적 FTA도 체결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
- 철강 부문에서는 한국의 경쟁 여건이 가장 불리한 상황
 - 민감 및 고민감 지정 품목 수 최다(말련 기준)
 - : 한국 94개, 중국 76개인 반면에 일본은 미지정 상태
 - 한국은 중국 및 일본 대비 높은 관세 부담 지속 전망

<2016년 예상 관세율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일본
열연강판	40~50	25	20
냉연강판	5~40	25	0

주: 2009 년부터 관세율 25%로 인하

- 무관세 쿼터(태국): 한국은 無, 일본 95만 톤
- 부가가치 40% 이상 원산지 규정
 - ‘열연수입~냉연제조’ 공정은 부가가치가 낮아 냉연 수출 시 특혜 관세 기대 어려움

IV. 종합 의견

- 동남아 철강시장은 세계 최대의 순수입 시장으로 로컬 Mill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여 향후에도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
- 현재의 시장 상황은 중국과 일본의 양강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Mill들은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
- 한편 한·중·일 3국은 모두 ASEAN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동남아 철강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은 한국이 가장 불리한 상황
- 한국 기업이 이를 극복하고 시장지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접근 방법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한 상황
 - 판매 네트워크 확보/확장이 시급하며,
 -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 진출 모색 필요

조대현 (e-mail: chodh@posri.re.kr)

박경서 (e-mail: kspak@posri.re.kr)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